

| | | | | |
|-----------|---|---|-------------|-----|
| 제 목 | 국 문 | 작업유형별 근골격계 증상 호소률에 관한 조사연구 | | |
| | 영 문 | A survey on the musculoskeletal symptom prevalence according to work task | | |
| 저 자 및 소 속 | 국 문 | 오혜주, 박인근, 이덕희, 장세한 고신대학교 의학부 예방의학교실 | | |
| | 영 문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Kosin University | | |
| 분 야 |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및 재해 | 발 표 자 | 오 혜 주 (전공의) | |
| 발표 형식 | 구 연 | | 발표 시간 | 15분 |
| 진행 상황 | 연구완료 (), 연구중 (0) → 완료 예정 시기 : 1993 년 12 월 | | | |

1. 연구 목적

산업사회의 기계화 및 자동화는 직업적으로 노출된 사람에게 힘(strength)을 적게 요구하는 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새로운 산업 stress가 되고 있어 최근 골격계 질환의 유병률과 이에 연관된 위험인자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작업유형에 따른 각 신체 부위에 근골격계 증상 호소의 차이를 비교 조사 연구하였다.

2. 연구 방법

연구대상자는 부산시 소재 2개 신발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자 근로자로서 상지의 반복정도와 소요되는 힘(loading)을 기준으로 반복적인 작업인 재단부서 53명, 작업시 상대적으로 많은 힘을 소요하는 프레스부서 74명 그리고 VDT 작업을 하지 않는 일반 사무직 근로자 30명을 대조군으로 연구하였다.

대상자는 개인면접을 통하여 연령, 교육수준, 근무연한, 정신적 문제, 과거 근골격계 증상 유무, 최근 1년간 신체부위별 (목,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둔부, 무릎, 발목) 증상 호소 정도(intensity)와 빈도(frequency), 그 증상으로 인한 치료여부 등의 변수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근골격계 증상 호소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를 조사하고자 증상에 대한 양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조사된 변수중 증상 호소의 정도와 빈도를 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연구 결과

1) 작업 유형에 대한 연령, 근무연한, 교육수준의 비교에서 연령은 대조군이 32.83 ± 5.5 로서 다른 두 군에 비해 적었으며($p < 0.01$) 근무연한은 재단부서가 8.04 ± 4.99 로 두 군보다 길었고($p = 0.01$), 교육정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작업유형별 증상점수의 분포는 재단부서가 0.80 ± 0.424 , 프레스부서는 0.63 ± 0.592 대조군에서는 0.86 ± 0.240 으로 세 군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 = 0.070$), 상지부위에 대한 증상점수의 분포도 대조군에서 다소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손목부위에서는 재단부서가 1.01 ± 1.708 로서 다른 두 군에 비해 증가해 있었다($p = 0.019$).

3) 연령별 신체 각 부위의 증상점수는 손목부위에서 30-40세군이 1.01 ± 1.707 로 30세 미만군 (0.59 ± 1.309)과 40세이상군 (0.21 ± 0.823)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증가해 있었으나($p = 0.009$) 다른 신체부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근무연한, 교육수준과 작업의 만족도에 대한 각 신체 부위에 증상점수의 분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증상 호소에 주요한 개인적인 위험인자에 대한 단변량회귀분석의 결과 모든 신체 부위에서 위험인자로 나타난 것은 동일한 부위에 증상 호소의 과거력이었고($p < 0.001$), 그 외 손목, 둔부, 무릎을 제외하고 정신적 문제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p < 0.05$).

6) 각 신체 부위에 대한 단변량회귀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중회귀분석 한 결과 모든 신체 부위에서 동일한 부위의 증상 호소 과거력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외 정신적 문제, 연령, 재단부서 등이 유의한 변수였다.

4. 고찰